

보도일시 | 2025년 6월 14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생포문화창고 체험과 예술이 어우러진 신규 전시 선보여

- 보고 만들고 찍고 예술로 즐기는 여름, 장생포문화창고에서 -



4층 「장생이와 함께 떠나요」 팝업전시 포스터



3층 갤러리B 「사이:공예 그 경계에서」 포스터

장생포문화창고(고래문화재단 운영)가 오는 6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체험형 전시와 청년예술 기획전 등 신규 전시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울산 남구의 대표 캐릭터 '장생이'를 중심으로 한 팝업 전시와, 지역 청년작가들의 공예·예술 융합 기획전으로 구성되며, 관람객의 직접 참여와 예술 경험에 중점을 둔다.

△장생이와 함께 떠나요! 팝업전시 (4층) ▶ 6. 14.(토) ~ 8. 24.(일)

‘여행’을 테마로 한 감성 체험형 전시로, 장생이 캐릭터와 함께 떠나는 콘셉트의 다채로운 포토존과 체험존이 마련된다.

SNS 인증샷 명소로 손색없는 다양한 촬영 공간의 포토존,

종이접기, 캐릭터 색칠하기, 포토부스 등 가족 단위 관람객 대상 프로그램의 체험존,

전시의 모든 구성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로 꾸며졌다.

△사이: 공예, 그 경계에서 기획전시 (3층) ▶ 6. 14.(토) ~ 7. 20.(일)

전통 공예기법을 현대적 예술로 재해석한 청년작가 68인으로 구성된 <Craft-us(크래프터즈)> 팀의 나전칠기의 광택, 터프팅의 질감, 나염의 색감 등 공예의 다양하게 표현된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며, 전시 연계프로그램으로 작가들에게 직접 공예기법을 배워보는 클래스도 함께 마련한다.

6. 14.(토) 실크스크린, 6. 15.(일) 나전칠기, 7. 5.(토) 우드카빙과 터프팅 체험 등이 있다. (선착순 무료 운영)

△함께 즐길 수 있는 상설 미디어아트 전시

3층 미디어아트 전시관에서는 정선, 김홍도, 신윤복 등 조선시대 대표 화가들의 작품을 미디어아트로 재해석 한 <조선의 결, 빛의 화폭에 담기다> 도 상시 운영 중이다.

고래문화재단 이사장(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신규 전시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라며, “예술이 일상 속 삶과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만큼, 많은 시민과 관람객들이 장생포문화창고를 찾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전시 일정과 참여 방법은 장생포문화창고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문의: 장생포문화창고 전시기획팀 ☎226-0015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6. 10.
